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주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폭력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상 옥

폭력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박 주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상 옥

# 인 준 서

김상옥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주목하고 그 사이에서 사회적지지가 긍정적으로 매개함을 밝혀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주목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연구들이 가진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배포한 860부의 설문지 중 82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Baron & Kenny가 제안한 방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여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그들의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및 검증하였다.

연구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평균이 중간값 3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는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노출경험 중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노출경험 중 피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폭력노출경험 중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 노출경험,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폭력노출경험은 더 이상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는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특히, 폭력노출경험 중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가 이러한 영향을 완전매개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을 위한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정과 학교, 또래관계에서 고등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하여 일관되게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역할갈등에 개입하여야 한다. 둘째,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고등학생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결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2. 폭력노출경험을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보호 및 폭력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학교 내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폭력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폭력노출경험을 가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적지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지지의 강화를 위해 첫째, 학급분위기를 교사와 학생, 또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관계증진을 위해 고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상담센터, 전문상담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은 물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고등학생의 교육과 심리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폭력노출경험, 부부폭력, 자녀폭력, 학교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용어의 정의 .....	5
1) 자아정체감 .....	5
2) 폭력노출경험 .....	6
3) 사회적지지 .....	7
<b>II. 이론적 배경</b> .....	<b>8</b>
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	8
1) 자아정체감의 개념 .....	8
2)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	10
2.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	12
1)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유형 및 실태 .....	12
2)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유형 및 실태 .....	16
3. 사회적지지 .....	19
1) 사회적지지의 개념 .....	19
2)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 .....	20
4. 선행연구 고찰 .....	24
1)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	24
2)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의 관계 .....	27

3)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	29
4)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	31
<b>Ⅲ. 연구방법 및 절차 .....</b>	<b>33</b>
1.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	33
1) 연구문제 .....	33
2) 연구모형 .....	34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	35
1) 연구대상 .....	35
2) 자료수집 .....	35
3. 측정도구 .....	36
1) 폭력노출경험 .....	36
2) 사회적지지 .....	38
3) 자아정체감 .....	39
<b>Ⅳ. 분석방법 .....</b>	<b>41</b>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1
2. 자료분석 방법 .....	44
<b>Ⅴ. 연구결과 .....</b>	<b>46</b>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의 수준 .....	46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의 수준 .....	46
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 .....	52
3)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 .....	54
2.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	57

3.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2
1)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2
2)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	63
3)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4
4) 소벨테스트 검증 .....	66

## **VI. 결론 .....**

1. 요약 및 논의 .....	70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수준 .....	70
2)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	72
3)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73
2. 연구의 함의 .....	75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 .....	80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3-1> 가정폭력 노출경험 척도 .....	37
<표3-2> 학교폭력 노출경험 척도 .....	38
<표3-3> 사회적지지의 척도 .....	39
<표3-4> 자아정체감의 척도 .....	40
<표4-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2
<표5-1> 고등학생의 부부폭력 노출경험 수준 .....	47
<표5-2> 고등학생의 자녀폭력 노출경험 수준 .....	49
<표5-3>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노출경험 수준 .....	51
<표5-4>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 .....	53
<표5-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 .....	56
<표5-6>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	60
<표5-7>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2
<표5-8>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	64
<표5-9>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65
<표5-10>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	66
<표5-11>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68
<표5-12>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결과 .....	69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34
<그림 5-1>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최종모형 .....	66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이며, 부모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점차 벗어나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9).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은 물론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므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양점미, 2011).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다음 시기를 맞이해야 한다. 발달과업은 매 발달단계에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인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신적 확장, 정서적인 안정, 현실에 대한 지각, 사회인으로써의 기능과 책임, 자기의 객관화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음 단계의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된다(김헌수, 1999).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의식에서는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차로 인한 그 변화가 다양한 시기임을 밝혔다. 이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자신감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자아정체감 발달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2004).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며, 본인의 진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

야 하는 시기(김봉환, 1997), Tuckman(1974)은 고등학교 시기에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갖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우리의 현 고등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의 전인교육과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외의 시간을 대부분 수면이나 공부(55.7%)를 하며 보내며,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가 적으며(80.8%), 학업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43.6%)을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수면, 식사 등 개인 심신의 유지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은 고등학생 평균보다 각각 1시간 이상이 감소하여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이다. 과반 수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56.8%), 51%의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78.3%)만이 아닌 가정 등 전반적인 생활(79%)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부로 인하여 고민(69.1%)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전인교육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반화 되어있다. 즉 자아정체감에 대한 문제는 대학 입학 이후로 미뤄지게 되어 대학생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아정체감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게 되고 그 해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Meeus, 1996). 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청소년은 우울, 비행, 청소년 일탈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정서적 환경, 즉 자율적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윤세은, 2000; 최은희, 2003; 양선영, 2006; 김현주, 2009; 류은정, 2011; 한상미, 2011; 문채욱, 2012),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환경도 자아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현림·천미숙, 2003; 황희숙, 2005; 김은경, 2009; 이현주, 2009; 김기수, 2010; 남궁혜정, 2012; 원상숙, 2014).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김세원, 2003;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조주영, 2014), 때로 매우 심각한 외상의 결과를 초래하며(김정선, 2002),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다(이상진, 정옥분, 1999; 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서윤, 2014).

먼저,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지표와 자료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 신체적 폭력 3.3%,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 순이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목격한 것을 들여다보면,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33.2%,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경험은 12.7%, 허리띠나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것을 목격한 경험은 3.6%로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경험은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48.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들은 경험이 29.6%, 손이나 발로 맞은 경험이 18.3%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7). 이와 같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폭력 중 상당 부분이 가정폭력이며, 이는 곧 청소년들이 정서적, 신체적 폭력의 형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에 비해 언어폭력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이며(교육부, 2014)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학교폭력 경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혜섭, 2005; 장덕희, 2007). 이는 곧 학교폭력이 연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를 이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 학생의 경우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고 일상화되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갈수록 격화되고, 그 결과는 자살, 살인, 방화 등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42.9%가 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의 충격적인 실태를 알 수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장시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복기, 이성진, 2012).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한편, 가족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는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박진아, 2001; 김윤경, 정문자, 2009), 폭력노출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김보람, 최수미, 2016)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류미라, 2002; 이승국, 1999)

이상과 같은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학교폭력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폭력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

다.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과 그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 사이에서 매개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노출 경험이 그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측면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가정 및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신적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용어의 정의

###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 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타인이 우리를 보는 견해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Erikson, 1980).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의 쓰임을 Erikson(1980)의 정의로 사용한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 느낌의 수준을 의미하는 주체성,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의미하는 자기수용성,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의미하는 미래 확신성과 과업을 수행,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목표지향성으로 구성한다.

## 2) 폭력노출경험

### (1) 가정폭력 노출경험

Straus(1990)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의 종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2008)은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개념까지도 가정폭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직접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폭력을 간접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 모에게 또는 모가 부에게 물리적으로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부부폭력이라 정의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 및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 주지 않는 행위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녀폭력으로 정의하였다. 가정폭력은 부부폭력과 가정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응답자가 부부폭력을 보거나 듣는 것, 부모로부터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정의하였다(정향기, 2015; 김현정, 2016).

### (2) 학교폭력 노출경험

Olweus(1994)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언어적·심리적·신체적·물리적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또래관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신체 및 정신에 피해를 입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학교폭력 노출경험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상호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이다(박지원, 1985; 박웅열, 2010; 최성한, 2011; 임셋별,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관심을 주는 것, 물건이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에 보탬이 되는 것, 주위환경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나 행위로 사회적지지를 정의하였다(House, 1981; 박지원, 1985; 최성한, 2011).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지지는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감, 안정감 등과 같은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 지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조언, 충고, 책임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지지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주희, 2016).

## Ⅱ. 이론적 배경

### 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 1) 자아정체감의 개념

정체감(identity)이라는 용어는 1950년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kson이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논리학이나 철학의 영역을 넘어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과 같은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있어서 필수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박아청, 1984).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정체감(identity)이라고도 하며 영어의 ‘identity’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identificat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아청, 1996). 이러한 개념은 자기정의, 자각, 주체성, 동일성, 존재증명 또는 자아정체감이라고도 한다.

Margaret(1985)은 자아정체감을 자신의 독특성에 대하여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느낌 또는 사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친숙한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인식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방식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김형태(1989)는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자기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개인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면 타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되며, 전체로서 유지되는 자기일관성을 갖는 것이 자아정체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박아청(1996)은 자아정체감을 비현실적이며 일시적이고 유희적인 동일시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동일시와 비교하면 자아정체감은 ‘나는 틀림없이 무엇이다’라고 실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희적이거나 애매한 것과는 다르며

자아정체감이 몇 개로 분열되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이란 첫째, 자기의 단일성, 연속성, 불변성, 독자성의 감각을 의미하고 둘째, 일정한 대상 인격간에 또는 일정한 집단 및 구성원간에 시인된 역할의 달성,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연대감, 안정감에 토대를 둔 자존감 및 잠정적인 자기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이승국, 1999). 따라서, 자아정체감이란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확신이며, 타인과 자신을 다른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유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유아기에 모자관계를 통한 경험의 일관성으로 동질성에서부터 형성, 발달되는 신뢰감이 원초적인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서봉연, 1975).

Erikson(1959)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에 대응하여 인생주기를 유아기, 아동초기, 유희기,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초기, 장년기, 노년기의 8 단계로 심리사회적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5번째 단계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나누는 것으로 사회심리적인 양식이 형성되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가진 성격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식하는 것에 의하여 발달하지만 신체적 불안감, 성역할 또는 직업선택에 대한 불안정감은 자아 혼돈감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개념이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느낄 경우에는 의심, 혼동, 무관심 등을 느껴 정체성의 형성이 방해를 받는다.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이나 변화하는 현재의 사회 환경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자아정체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자아정체감 위기 또는 역할 혼미는 다음 단계의 교육을 어렵게 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면 무력감이나 혼란감, 심한 허무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욕구불만, 비인간화,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와 친구,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김은경, 2009).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에 대한 각성과 함께 사회 환경과 교육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2)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탐색하고 탐색한 역할들을 자아정체성으로 통합하는 시기이다. 자아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한 청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꾸준히 정진하며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며 행동한다. 이들은 직업선택이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 대체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관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이용교, 2012).

Erikson(1959)은 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첫째, 아동기에 인식한 동일시 대상 가운데서 목표를 선택하기도 하고 청소년기에 새로 인식한 동일시가 서로 동화되거나 새로운 짜임새 속에 추가되면서 진정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 둘째, 청소년기는 새

로운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전 단계에서 인식된 동일시의 요소들이 새롭게 구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합하게 된다. 셋째,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성적 변혁과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요구에 당면하여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게 되나 발달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과정으로 진화하게 된다. 넷째, 자아정체감 형성은 정신적 체계의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정체감으로서 지속하려는 능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봉연(1998)은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발이 되며 자아정체감은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으며,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사춘기 시기에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로 진행하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기는 진학, 전공선택, 이성관계 등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넷째, 청소년기에 현저하게 성장하는 인지 능력의 발달 때문이다. 문제는 자아는 인간의 심층적이고 본질적 개념으로 자아정체감의 획득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이념적 확신과 더불어 실제적 느낌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가정과 사회 또는 국가에서 규정되어지는 ‘나(我)’ 라는 성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이 시기에 청소년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미숙, 2008). 특히 자아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청소년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또 어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

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교육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 2.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 1)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유형 및 실태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과 모델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접근하고 있다. Straus & Gelles(1979)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족구성원간의 폭력행태로서 가족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였다(Straus, Gelles, 1979).

장덕희(2001)는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신옥(2003)은 혼재되어 사용되는 학대와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폭력을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학대는 힘이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형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08).

1998년 7월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양친자관계 포함)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사이를 포함한다(박혜숙, 2016).

## (2) 가정폭력의 특성

부부폭력은 아내학대(wife abus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아내구타(wife battering),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부부폭력(marital violence)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서명선, 1985). 부부폭력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력으로 그동안 부부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내구타, 여성학대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부부폭력은 부부가 서로에게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줄 의도로써 행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정의한다(장덕희, 2001). 김재엽(1997)은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부부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 형태는 여성가족부(2004)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폭력유형에 따른 것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박혜숙, 2016). 신체적 폭력은 다른 사람을 때리고, 밀치고, 차고, 찌르는 등의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적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폭력 수준의 심각성에 따라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한 폭력은 물건을 타인에게 던지거나 세게 밀치는 것,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한 폭력은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 물건 등으로 때리는 것, 심하게 마구 때리는 것,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폭력은 통제와 불안, 공포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조사부터 부부폭력을 더 세분화하여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로 구분하였고, 2010년 조사부터는 통제를 포함하여 6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자녀에 대한 폭력은 부모나 돌보는 사람 등의 보호자가 자녀에게 눈에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신체적 폭력과 청소년이나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사람 또는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말한다.

박은민(2008)은 정서적 폭력의 범주를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거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말, 욕 등의 언어적인 폭력과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녀폭력의 하위 유형별 정의를 살펴보면, 김혜련(1993)은 정서적 폭력에 대해 비신체적 폭력으로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모의 의사소통으로 원망적, 위협적, 거부적, 적대적 언어를 통한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신체적 폭력에 대해 류도희(1997)은 ‘부모가 자신의 권위에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자녀에게 의도적, 고의적인 공격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 (3) 가정폭력 노출경험 실태

김재엽, 양해원, 김희수(2005)는 서울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부부간 폭력 목격률은 37.6%,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은 33.4%, 신체적 폭력은 22.4%로 보고하였다. 김효진, 이재연(2004)은 서울시 및 인천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 10학급 중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초등학생 336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과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동은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의 유형을 각각 34.2%, 25.7%로 가장 많이 목격하였고,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을 더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2010)의 연구결과 최근 1년동안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전체의 41.9%,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이승출(2011)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33.6%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에 응답한 자녀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정서적 폭력경험(46.8%), 신체·물리적 폭력경험(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부부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미숙(1999)은 한 달에 1~2회 이상 부부 폭력을 목격하는 자녀가 18.6%에 이르며, 자녀들이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가정이 약 250만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김재엽(2001)의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상호연관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아버지에 대해 심한 구타를 행사하는 어머니 역시 아동에 대한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2)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유형 및 실태

###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폭력의 일종으로 폭력이 일어나는 배경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지칭한다(지영환, 2013).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Olweus(1978)의 ‘bullying’의 개념을 인용하여 정의하였다. Bullying이란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부정적 행동은 폭행, 구타, 위협 등의 직접적인 행위와 놀림,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구본용(1997)은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구본용, 1997).

박경숙, 손희권, 송계명(1998)은 집단따돌림에 대해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에게 개인이 돌아가며 또는 여럿이 집단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012년 1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2, 제2조 1항).

## (2) 학교폭력 가해경험

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가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중 0.37%에 수준으로 약 16,000명이며, 2015년에는 0.43%, 2014년에는 0.59%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조사하였으며, 가해 발생률은 2016년에는 초등학교 1.0%, 중학교 0.2%, 고등학교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초등학교 1.0%, 중학교 0.3%, 고등학교 0.1%, 그리고 2014년 초등학교 1.1%, 중학교 0.6%, 고등학교 0.2%였다(교육부, 2016). 이처럼 가해 발생률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보통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에 무감각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있으며,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을 밖으로 행동화하는 경향이 높다(한유경 등, 2014). 또한 높은 공격성, 낮은 자기 통제력, 공감능력 부족(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7), 충동성(Olweus, 1994), 미성숙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박진영, 채규만, 2011), 폭력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김수정, 2005) 등의 특성을 보인다. 더구나 학교폭력 가해와 정리병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가해학생들이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낮은 지능, 과잉행동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Booth & Osgood, 1993), 반사회적 경향과 높은 일탈행동(Baldry & Farrington, 2000)의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적·행동적 문제와 관련이 높아 이에 대한 연구와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 (3) 학교폭력 피해경험

교육부의 실태조사(2016)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교폭력 피해 발생률은 피해를 당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0.9%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1.0%, 2014년에는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각각 2.0%, 0.7%, 0.4%, 그리고 2014년에는 각각 2.4%, 1.3%, 0.6%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이처럼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피해경험도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비교적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자살의 정신병리 문제를 가질 수 있다(한유경 등,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불안, 우울 등 내면적인 증상과 더불어 비행, 약물남용, 가출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ish & Guerra, 2002; 아영아, 정원철,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인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더 높게 나타난다(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 1997).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국내 중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집단에서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 또래 스트레스와 분노,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재기, 2011).

2014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3.8% 수준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중 50.0%는 주관적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42.9%는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직접 자살을 시도까지 해 본적이 있는 학생은 41.8%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

반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피해 발생률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사회적지지

#### 1) 사회적지지의 개념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넓은 의미에서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말한다(박지원, 1985). 초기의 사회적지지는 행동과학분야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Durkheim(1952)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에세이에서 사회적지지를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와 물질적인 원조, 정보제공, 업무나 활동의 보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 하였으며, 사회적지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이미라, 2001). 여러 연구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가 심리적·신체적인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이용되어 왔다(이미애, 2004).

Cohen & Hoberman(1983)은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지각한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사회적지지를 정의하였다. Cobb(1976)는 사회적지지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보호와 사랑과 예우를 받고 있거나 타인과 상호책임관계에 있음을 믿게끔 하는 정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Kahn & Antonucci(1981)는 사회적지지란 한 인간의 타인에 대한 신뢰나 시인, 또는 타인에게 물질적 도

움이나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것 등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조상윤, 2004).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구성된 개념차원에서 실제로 제공받는 지지수준, 자신이 사회망의 구성원에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자신의 인식 수준으로 사회적지지를 정의했다(박지원, 1985).

이동숙, 이은옥(1997)은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대인관계의 상호성이 존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한국문화에서 지지의 개념은 서구와는 달리 맥락과 관계가 중시되고 관계는 연(聯)을 바탕으로 하며, 정, 도움, 믿음 및 사랑의 속성을 내포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오가실 등, 1999),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지지이며 실제적인 사회적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사회 심리적 자산, 지지체제, 관계 제공 등의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김연숙, 김지미, 2001).

## 2) 사회적지지의 구성 요인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적지지는 다양하게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애정이나 호의, 소속감, 사회적지지망을 통한 개인의 지지에 대한 접근, 관심, 확신, 도움 등과 같은 개인 상호작용의 실질적인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Lin, Dean, & Ensel, 1986)을 포함한다.

사회적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인 '지지원(支持源)'과 주체가 제공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로 요인을 나눌 수 있다. 지지원이란 개인이 보

유한 대인관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한다. 지지원은 부모, 형제자매, 친지, 친구, 교수, 소속된 집단, 사회,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사회적지지에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권현주, 남영희, 천의영, 2012).

사회적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이란 개인이 가지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 측면으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지지의 한 측면이다(박혜숙, 2016).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종류와 크기, 관계망과의 접촉 빈도, 지지의 집중도 및 밀도 등 객관적 측면의 사회적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지지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나 사회적지지망과의 관계의 기능을 말한다(Cohen & Wills, 1985; Lin, Dean, & Ensel, 1986; Cohen & Syme, 1985; 홍예진, 2015).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실제적인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묻는 구조적 측면과는 달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의논할 친구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질의 관점에서 개인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 온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했다(Cohen & Hoberman, 1983; 전은주, 2014).

한편 사회적지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는데, 첫 번째 사회적지지의 유형으로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좋은 의견을 제공해 주는 등의 직접적지지이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서

불안과 긴장이 될 때 이를 공감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줌으로써 소속감과 안정을 유지하게 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정서적지지이다 (Cohen & Hoberman, 1983).

Thoits(1982)는 사회적지지의 유형을 타인으로부터의 애정·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지지, 정보 및 지식 등의 인지적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화·용역 등의 현실적지지 등으로 구분하였다(박혜숙, 2016).

또한 House(1981)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을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지지는 지지의 대상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주변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존중, 경청, 관심, 배려, 애정, 신뢰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도구적지지는 지지의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물질, 노동력, 환경의 개선, 시간, 현금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적지지는 개인 또는 환경으로부터 발생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고, 지시, 제안 등이 있다. 넷째, 평가적지지는 개인에게 역할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를 하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확인, 피드백, 사회적 비교를 해주는 것 등이 있다(안지영, 2015).

Cohen & Wills(1985)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을 소속감지지, 자존감지지, 정보적지지, 유형적지지로 구분하였다. 소속감지지는 정서적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존중, 경청, 관심, 배려, 애정, 신뢰 등 사회적지지망 안에 개인이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얻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지지이다. 자존감지지는 평가적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정한 평가, 소질 인정, 인격 존중 등 개인의 가치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적지지는 개인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조언, 행위에 대한 피드백,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적지지는 개인이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게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물질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돈, 물건, 시간, 서비스 등을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예진, 2015).

다음으로 지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 형제, 교사, 학급동료, 친구 등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사회적지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Peterson & Zill(1986)은 연구에서 청소년 후기의 남학생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을 아버지 68%, 어머니 66%, 친구 51%, 형제자매 48%, 교사 44% 순으로 느꼈고, 여학생은 어머니 72%, 친구 57%, 아버지 51%, 교사 44%, 형제자매 33%의 순으로 의미 있는 타인으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이현진, 2009).

박주희(2015)는 사회적지지를 제공해주는 주체에 따라 공식적인 사회적지지는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상담가 등의 가족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의 정도로, 비공식적인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기회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단일차원의 의미를 벗어나 다수의 하위 기능으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들 또한 제각각으로 나타난다. 조성희(2007)는 하위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작용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위 기능을 모두 합한 개념이 전체의 사회적지지를 설명한다는 관점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하위개념이 통합된 개념의 사회적지지를 적용하여 관련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4. 선행연구 고찰

### 1)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각간에 상호관계를 끊임없이 맺음으로써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따라서 자신이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점차로 그 관찰이 자신의 자기개념으로 전환되는데, 자기의 개념에 기초를 둔 많은 증거들이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개념이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박아청, 2003).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으며(정종권, 1998),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초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태련, 김유진, 1979; 유명환, 1989).

가정폭력은 가족갈등에 대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가정폭력과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가족 내의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 해결능력이 낮고 자아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on & Simmons, 1989). 또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 구성원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가정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훈계의 도구나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지는 특징을 갖는다.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은 다양한 폭력행위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 피해가 일차적으로 부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기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정폭력 경험은 가정 내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폭력 사건을 보거나 듣는 것, 폭력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처나 심리적 우울 등을 관찰하는 것 등을 포괄한다(신혜섭, 2000; Holden, Geffener & Jouriles, 1998). 예를 들어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폭력을 목격한 남자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친밀한 관계에서 구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싸움이나 폭력의 사용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 그리고 비행이나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김경호, 2003; Caputo, Frick & Brodsky, 1999)가 있다.

학교폭력의 비행경험에 관련된 특징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엄명용, 2000). 학교폭력 경험의 유무를 봤을 때도 무경험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고 가해,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정체감(안정성, 자기수용성, 대인관계)이 낮았다(이상진, 정옥분, 1999).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적응, 정신건강, 사회정서 발달인 부적응 측면에서 공격성과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받고(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서운, 2014), 김종환(2002)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낮은 자아정체감과 비행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방해로 받게 되면 정체감 혼돈과 함께 좌절감과 불안함 심리로 인해 우울과 비행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하였다(안영순, 2010).

서연주(1998)은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행동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하위변인 중, 주체성과 주도성이 공격성에 대하여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가해경험이 올라갈수록 자아정체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창욱, 2012). 또한,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자아정체감의 일부 하위변인은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할 경우 하위변인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한 학기에서 한 학년으로 계속되기도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시작되어 고등학교까지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해학생의 후유증이 크며 이런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은 무경험 및 일시적 피해 학생들보다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성,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정체감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현숙, 2013).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은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하며(정동채, 1997; 조주영, 2014)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으로써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조주영, 2014).

이처럼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지속적인 경험은 자아정체감 이외에도 청소년기 사회정서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심리적 격동기인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보편화되고 집단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박재은, 2016).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자아정체감의 발달 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서적, 신체적 부정적 영향을 주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 2)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의 관계

사회적 지지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해주며,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Cohen & Willis, 198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Gore, 1981; House, 1981).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부적응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면 대안적이고 규범적인 반응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공격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피해자들에게도 자아존중감 향상과 적극적인 대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n, 1985 ; Silver & Worstman, 1980).

박미은(1997)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할 때 아내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학대에 대한 대처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아내들이 이를 긍정적인 도움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학습된 무기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Finn(1985)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고 사회나 주위로 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녀폭력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박재연(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녀폭력경험이 사회적 지지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주소영(2008)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와 같은 자녀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미, 김주현(2012)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주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2013)는 대학생의 자녀폭력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박근혜(1998)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친구를 가장 큰 사회적지지원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민경(2010)은 자녀폭력경험은 사회적지지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자녀폭력경험의 영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학교폭력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친구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김혜원, 이해경, 2000),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친구는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 및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박진아, 2001). 반면 이은주(2000)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비행이나 폭력행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친구지지는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는데, 이는 특히 청소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친구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관심과 보호의 느낌을 주면 학교폭력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의지를 갖게 된다(김윤경, 정문자, 2009).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며(McNeal, 1999), 폭력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나 비행을 촉발하더라도 그 영향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최윤정, 이시연, 2006). 특히 Olweus(1994)는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적 행위를 촉발하는 요인 중 중

요한 원인으로 낮은 가족지지를 지적하였다. 최성열(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는지, 또한 얼마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청소년 시기의 폭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극한다고 보았다(최성열, 2001).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사회적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행복감, 우울 등 정서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인(김보람, 최수미, 2016; 송은주, 2015; 어유경, 정안숙, 박수현, 2015)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부모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형제, 자매지지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부모관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나, 연령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지지원이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사회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 애정, 도구적 도움, 인정등의 다양한 지지를 제공 받는다.

청소년이 가정 이외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며,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성숙의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승국, 1999).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교사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Furman & Burmester, 1985).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류미라, 2002; 최주희, 1994). 이승국과 박아청(1996)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형제의 관계,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또래의 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승국(1999)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이라는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함으로써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열(2001)은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변인과 사회적지지를 자아정체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지지의 수준과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미(2006)는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신혜정(2007)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성열(2001)은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지지 정도와 자아정체성의 하위요인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영미(2005)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용미(2003)는 청소년 지각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 세계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의 평균 수준이 높게 나타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만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연속적이고 잠정적인 동일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회적지지의 정도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달라진다(심미희, 200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개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변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정되고 능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변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지지는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의 형성 및 발달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서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학교성적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에서 안영순(2010)은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하였고, 장부연(2009)은 학교 성적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지력과 자신감 상승에 따른 계획과 실행 의지가 높고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이 높다고 하였다(박재은, 2016).

자아정체감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Marcia(1996)의 대인 관계에서 친밀성과 자아정체감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청소년기 또래와의 관계는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교우관계는 자아정체감과 인간관계 정체감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한 연구(김민자, 1991; 이상진, 정옥분, 1999), 친구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친구의 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가 있다(안영순, 2010).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은 선행연구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다르며 일관적이지 않다. 권혜진(1992), 송설희(1994), 박경란(1998) 등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아정체감의 성차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서봉연(1975)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있어서 중학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보였고 고등학교에서는 같아져서 대학 이후에는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낮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박아청(1990)은 여자가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김순화(1983), 심계전(1985), 김희영(1986)은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홍성애(1988), 윤명숙(1989)은 자아정체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학력수준 보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아정체감에 형성에 영향력을 더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홍향연, 유태명, 2008)가 있으며, 서봉연(1975)은 경제수준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은 자신에게 갖는 기대에 대해 경제수준이 어려운 청소년보다 적응력이 좋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Turner(1990)는 가정의 월수입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인섭(2002)은 부모직업, 부모학력, 종교, 가정생활 수준, 가족화목정도의 변인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와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폭력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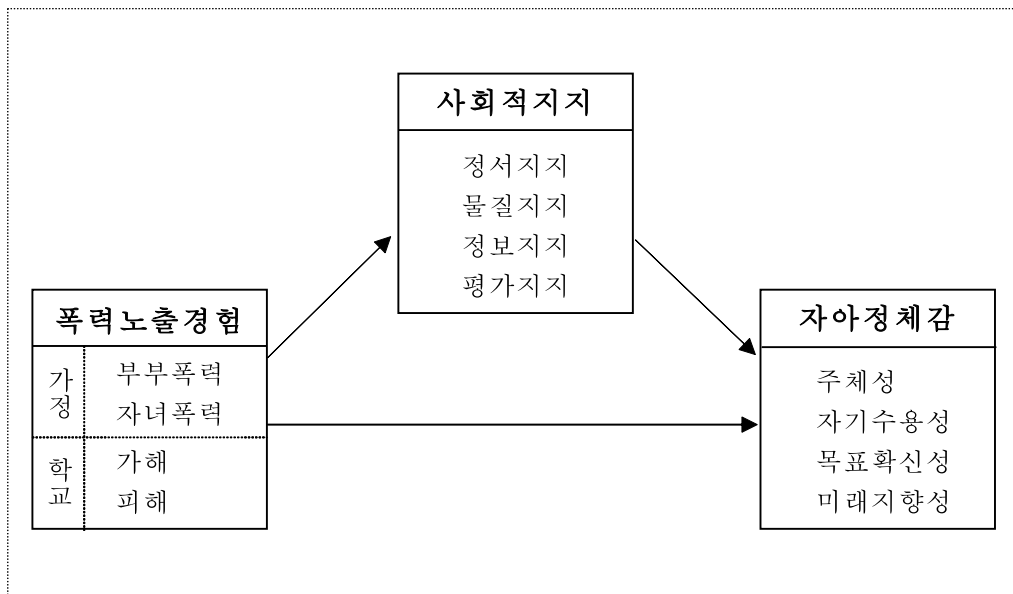
3-1.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3. 폭력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이며 종속변수는 자아정체감, 매개변수는 사회적지지이다. 통제변수로 성별, 학년, 형제수, 부모와 동거여부, 주관적 경제생활정도,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학업성적, 친한 친구수 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그림3-1> 연구모형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8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교별로 4개 학급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총 8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8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자료수집

####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소재의 고등학교 2개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고등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설문조사의 방법을 숙지시킨 후에 학생들에게 응답방법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회수된 총 3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편부모로 인해 부부폭력 노출경험에 대한 설문을 응답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하고 25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1.0을 활용하여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 이상)를 보였다. 설문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기간 동안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조사를 승낙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8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설문의 취지 및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에 약 20분~30분의 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8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83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823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폭력노출경험

고등학생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을 위한 측정도구와 학교폭력을 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90)가 개발한 갈등관리행동척도인 CTS(Conflict Tactics Scale)와 CTS2(Straus. et al., 1996)를 장덕희(2001)가 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문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부부폭력의 2가지 하위개념(정서적 폭력 5문항, 신체적 폭력 8문항으로 총 13개 문항)과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인 자녀폭력의 3가지 하위개념(정서적 폭력 7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 방임 5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전체 총 31개 문항으로 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이 전혀 없다(1점), 1년에 한두 번(2점), 한 달에 한두 번(3점),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거의 매일(5점)의 5개 범주로 이루어졌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3-1>과 같다.

<표3-1> 가정폭력 노출경험 척도

구분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부부폭력	정서적 폭력	5	.896
	신체적 폭력	8	.932
부부폭력		13	.927
자녀폭력	정서적 폭력	7	.872
	신체적 폭력	6	.874
	방임	5	.748
자녀폭력		18	.898
가정폭력 노출경험		31	.931

학교폭력 노출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mivalli et. al.(1996)에 의해 고안된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전환희(201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문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등의 직접적 형태와 소속된 집단에서 고의적으로 배제

하는 등의 간접적 형태가 모두 포함되었다. 가해 및 피해 영역은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1점에서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3-2>와 같다.

<표3-2>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척도

구분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학교폭력	가해	7	.821
	피해	7	.854
학교폭력 노출경험		14	.892

## 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자원(Social support) 도구와 장운정(2007)이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박주희(2016)가 재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의 표본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척도는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친구 친척 이웃 주변사람들로 부터 지각한 사회적지지 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개념은 4개(정서지지 5문항, 물질지지 5문항, 정보지지 5문항, 평가지지 6문항)로 구성되며 정서지지는 개인의 사회, 정서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 사랑, 관심, 격려, 신뢰, 공감적 경청, 이해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지지는 돈, 서비스, 물건, 시간 등을 필요시에 제공하는 것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조언, 충고, 지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지는 개인의 가치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 인격 존중, 가치고양, 의사존중, 칭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표3-3>과 같다.

<표3-3> 사회적지지의 척도

구분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사회적지지	정서지지	5	.920
	물질지지	5	.876
	정보지지	5	.914
	평가지지	6	.935
사회적지지		21	.976

###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박아청(1996)이 개발하고 송현옥(200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을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8문항), 자기수용성(8문항), 미래확신성(4문항), 목표지향성(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성은 역할 환경에 대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느낌의 정도, 자기수용성은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 미래 확신성은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 목표지향성은 과업을 수행,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2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체적인 자아정체감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표3-4>와 같다.

<표3-4> 자아정체감의 척도

구분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아정체감	주체성	8	.915
	자기수용성	8	.902
	미래확신성	4	.848
	목표지향성	4	.849
자아정체감		24	.929

## IV. 분석방법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44.2%, ‘여자’가 55.8%이었으며,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23.3%, ‘고등학교 2학년’이 45.0%, ‘고등학교 3학년’이 31.7%이었다. 형제수는 ‘1명’이 61.5%로 가장 많았고, ‘2명’은 19.2%, ‘3명’은 5.5%이었으며, 형제가 없는 청소년은 13.9%이었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은 ‘부모 모두’가 77.3%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만 같이 사는 청소년’은 7.2%, ‘어머니와만 같이 사는 청소년’은 12.2%이었으며, ‘기타’가족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3.4%이었다.

경제수준은 ‘보통이다’ 61.6%, ‘약간 어려운 편이다’ 20.2%, ‘약간 좋은 편이다’ 7.2%, ‘어렵다’ 6.1%, ‘좋은 편이다’ 5.0% 순으로 집안의 경제사정이 좋은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12.2%이었으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6.3%이었다.

부모님의 직업은 ‘회사원’이 31.6%, ‘자영사업’이 19.2%, ‘기술전문직’이 15.2%, ‘서비스업’이 10.4%, ‘전문직’이 5.7%, ‘도·소매업’이 3.9% 순이었고, ‘기타’는 14.0%이었다. 부모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9.7%, ‘대학교 졸업’이 39.1%, ‘전문대학교 졸업’이 6.4%, ‘대학원 졸업’이 4.7%이었다.

학업성적은 ‘5-6등급’ 27.3%, ‘3등급’ 25.8%, ‘4등급’ 24.1%, ‘1-2등급’ 13.0%, ‘7등급 이하’ 9.8% 순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수는 ‘11명 이상’이 34.6%로 가장 많았고, ‘6-8명’이 25.6%, ‘3-5명’이 25.4%, ‘9-10명’이 10.4%, ‘2명 이하’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4-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364	44.2
	여자	459	55.8
학년	고등학교 1학년	192	23.3
	고등학교 2학년	370	45.0
	고등학교 3학년	261	31.7
형제수	1명	506	61.5
	2명	158	19.2
	3명	45	5.5
	없다	114	13.9
동거가족	부모 모두	636	77.3
	아버지만	59	7.2
	어머니만	100	12.2
	기타	28	3.4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어렵다	50	6.1
	약간 어려운 편이다	166	20.2
	보통이다	507	61.6
	약간 좋은 편이다	59	7.2
	좋은 편이다	41	5.0

(표 계속)

구분	빈도(N)	백분율(%)	
부모님 직업	회사원	260	31.6
	자영사업	158	19.2
	전문직	47	5.7
	기술전문직	125	15.2
	도/소매업	32	3.9
	서비스업	86	10.4
	기타	115	14.0
	부모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9
전문대학교 졸업		53	6.4
대학교 졸업		322	39.1
대학원 졸업		39	4.7
학업성적	1-2등급	107	13.0
	3등급	212	25.8
	4등급	198	24.1
	5-6등급	225	27.3
	7등급 이하	81	9.8
친한 친구 수	2명 이하	32	3.9
	3-5명	209	25.4
	6-8명	211	25.6
	9-10명	86	10.4
	11명 이상	285	34.6
전체	823	100.0	

##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둘째,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Baron & Kenny, 1986).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과 부모동거 문항에 대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가 10보다 작은지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폭력노출경험 중 어느 요인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폭력노출경험 중 어느 요인이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를 모두 투입하고 종속변수를 자아정체감으로 투입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 변인이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가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려면 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는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거쳐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인 소벨테스트(Sobel, 1982)를 실시하여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으로써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소벨테스트는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beta$ 값과 표준오차,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beta$ 값과 표준오차로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계산식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 V. 연구결과

###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의 수준

####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의 수준

##### (1) 부부폭력 노출경험 수준

고등학생의 부부폭력 노출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5-1>과 같다. 부부폭력 노출경험의 전체 평균은 1.29로, '정서적 폭력'(M=1.53), '신체적 폭력'(M=1.13)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정서적 폭력은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M=1.86),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M=1.61), '다투시다가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M=1.49), '상대방을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M=1.38),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M=1.32) 순으로 정서적 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다.

신체적 폭력은 '다투시다가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M=1.26), '다투시다가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M=1.25),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M=1.17), '다투시다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M=1.09), '다투시다가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M=1.09),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M=1.09), '다투시다가 칼이나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M=1.07), '다투시다가 상대방을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M=1.06) 순으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다.

<표5-1> 고등학생의 부부폭력 노출경험 수준

	구분	Mean	SD
정 서 적 폭 력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61	1.02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86	1.03
	다투시다가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49	.83
	상대방을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38	.79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1.32	.72
	정서적 폭력	1.53	.75
신 체 적 폭 력	다투시다가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25	.62
	다투시다가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1.26	.62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17	.51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09	.42
	다투시다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09	.40
	다투시다가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	1.09	.41
	다투시다가 상대방을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1.06	.34
	다투시다가 칼이나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1.07	.37
	신체적 폭력	1.13	.39
	부부폭력	1.29	.48

## (2) 고등학생의 자녀폭력 노출경험 수준

고등학생의 자녀폭력 노출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5-2>와 같다. 자녀폭력 노출경험의 전체 평균은 1.26으로, '정서적 폭력'(M=1.43), '방임'(M=1.16), '신체적 폭력'(M=1.15)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정서적 폭력은 '부모님이 나에게 고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M=2.04), '부모님이 나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M=1.73), '부모님이 나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M=1.29),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M=1.29),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M=1.25),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M=1.20), '부모님이 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M=1.19) 순으로 정서적 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부모님이 나를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M=1.28), '부모님이 나의 몸을 세계 밀친 적이 있다.'(M=1.19), '부모님이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M=1.16), '부모님이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M=1.16), '부모님이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M=1.10),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M=1.03) 순으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다.

방임은 '부모님은 나에게 제 때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M=1.26), '부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M=1.15), '부모님은 내가 지저분한 옷을 입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M=1.13), '부모님은 내가 규칙(공중질서)을 지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M=1.13), '부모님은 내가 음란 서적(만화)나 음란 동영상을 보아도 내버려 둔다.'(M=1.12) 순으로 방임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2> 고등학생의 자녀폭력 노출경험 수준

	구분	Mean	SD
정 서 적 폭 력	부모님이 나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73	.96
	부모님이 나에게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2.04	1.04
	부모님이 나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29	.62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29	.68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1.25	.58
	부모님이 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19	.52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1.20	.53
	정서적 폭력	1.43	.55
신 체 적 폭 력	부모님이 나의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1.19	.52
	부모님이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16	.47
	부모님이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1.16	.47
	부모님이 나를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1.28	.56
	부모님이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1.10	.38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1.03	.23	
	신체적 폭력	1.15	.35
방 입	부모님은 내가 지저분한 옷을 입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1.13	.57
	부모님은 나에게 제 때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	1.26	.82
	부모님은 내가 음란 서적(만화)나 음란 동영상을 보아도 내버려 둔다.	1.12	.53
	부모님은 내가 규칙(공중질서)을 지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1.13	.58
	부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1.15	.61
	방입	1.16	.44
	자녀폭력	1.26	.38

### (3)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노출경험 수준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노출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5-3>과 같다. 학교폭력 노출경험 전체의 평균은 1.42로, ‘가해’(M=1.53), ‘피해’(M=1.31)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가해는 ‘나는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다른 아이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M=2.37), ‘나는 다른 아이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M=1.57),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M=1.51), ‘나는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다른 아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M=1.50),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어떤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M=1.33), ‘나는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M=1.20),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M=1.19) 순으로 가해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다.

피해는 ‘반 아이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M=1.55), ‘누군가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M=1.35), ‘반 아이들 혹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M=1.33), ‘반 아이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M=1.29), ‘반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M=1.25),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M=1.21), ‘반 아이들이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M=1.16) 순으로 피해에 대한 노출경험이 높았다.

<표5-3>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노출경험 수준

	구분	Mean	SD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51	.92
	나는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다른 아이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2.37	1.23
	나는 다른 아이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1.57	.92
	나는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1.20	.59
가	나는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다른 아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1.50	.87
해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어떤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33	.74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19	.53
	가해	1.53	.59
	누군가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35	.85
	반 아이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55	.97
	반 아이들 혹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1.33	.75
피	반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	1.25	.66
해	반 아이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1.29	.74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21	.64
	반 아이들이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1.16	.53
	피해	1.31	.55
	학교폭력	1.42	.52

## 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5-4>와 같다. 자아정체감 전체의 평균은 3.47로, '주체성'(M=3.75), '자기수용성'(M=3.60), '미래확신성'(M=3.18), '목표지향성'(M=2.94)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주체성은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M=4.02),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M=3.96),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M=3.81),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M=3.76),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M=3.70),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M=3.64),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M=3.59),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M=3.51) 순으로 주체성이 높았으며, 자기수용성은 '우리 집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M=3.94),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M=3.80),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M=3.75),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M=3.65),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M=3.4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M=3.4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M=3.41),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M=3.30) 순으로 자기수용성이 높았다.

미래확신성은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M=3.33),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M=3.26),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M=3.11),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M=3.04) 순으로 미래확신성이 높았고, 목표지향성은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M=3.21),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M=2.91), '나는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M=2.89),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M=2.75) 순으로 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

	구분	Mean	SD
주 체 성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3.96	.90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4.02	.84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3.76	1.03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3.81	.99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3.64	.96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3.70	.99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59	1.08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	3.51	1.03
	주체성	3.75	.78
자 기 수 용 성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3.47	1.32
	우리 집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3.94	1.01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30	1.2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3.46	1.22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3.41	1.23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3.80	1.13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3.65	1.23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3.75	1.19	
	자기수용성	3.60	.93

(\*) 역문항

(표 계속)

구분		Mean	SD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3.11	1.30
미래 확신 성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	3.04	1.29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3.26	1.12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3.33	1.14
미래확신성		3.18	1.01
목표지 향성	나는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2.89	1.12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3.21	1.13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2.75	1.11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2.91	1.09
목표지향성		2.94	.92
자아정체감		3.47	.69

(\* ) 역문항

### 3)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5-5>와 같다. 사회적지지 전체의 평균은 3.89으로, ‘정서적지지’(M=3.99), ‘평가지지’(M=3.91), ‘정보지지’(M=3.90), ‘물질지지’(M=3.76)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정서적지지는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M=4.10),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M=4.0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M=4.00),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M=3.92),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해 준다.’(M=3.88) 순으로 정서적지지가 높았다.

물질지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 준다.’(M=4.02),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준다.’(M=3.90), ‘무슨 일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M=3.88),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M=3.67),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 돈 이라도 마련해준다.’(M=3.31) 순으로 물질 지지가 높았다.

정보지지는 ‘내 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M=4.03),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M=4.01),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M=3.98),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다.’(M=3.97),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M=3.51) 순으로 정보지지가 높았다.

평가지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M=4.02),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M=3.98),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해 준다.’(M=3.92),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M=3.91),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 준다.’(M=3.84),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M=3.80) 순으로 평가 지지가 높았다.

<표5-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

	구분	Mean	SD
정 서 적 지 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92	1.06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4.10	1.00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4.00	1.01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4.07	1.06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해 준다.	3.88	1.04
정서적 지지		3.99	.90
물 질 지 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 돈 이라도 마련해준다.	3.31	1.13
	무슨 일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3.88	1.03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준다.	3.90	1.06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 준다.	4.02	.93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3.67	1.06
물질 지지		3.76	.85
정 보 지 지	내 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	4.03	1.05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3.51	1.13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다.	3.97	.93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4.01	.94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3.98	.97
정보 지지		3.90	.87

(표 계속)

구분	Mean	SD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해 준다.	3.92	1.01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3.91	1.02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 준다.	3.84	1.06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3.80	1.07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4.02	.99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3.98	.97
평가 지지	3.91	.89
사회적지지	3.89	.84

## 2.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5-6>과 같다.

고등학생의 부부폭력 노출경험은 자녀폭력 노출경험의 신체적 폭력 ( $r=.482, p<.001$ ), 정서적 폭력( $r=.407, p<.001$ ), 방임( $r=.321, p<.001$ ) 순으로 정적 상관이 높았고, 전체적인 자녀폭력 노출경험과 높은 정적 상관( $r=.503,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피해( $r=.314, p<.001$ ), 가해( $r=.300, p<.0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학교폭력 노출경험과는 정적 상관( $r=.33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r=-.219, p<.001$ ), 정서지지( $r=-.203, p<.001$ ), 정보지지( $r=-.172, p<.001$ ), 물질지지( $r=-.169, p<.001$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사회적지지와는 부적 상관( $r=-.200,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r=-.167, p<.001$ ), 자기수용성( $r=-.155, p<.001$ ), 목표지향성( $r=-.089, p<.05$ ), 미래확신성( $r=-.080, p<.05$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 $r=-.172,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피해( $r=.322, p<.001$ ), 가해( $r=.275, p<.001$ )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학교폭력 노출경험과는 정적 상관( $r=.327,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r=-.244, p<.001$ ), 정서지지( $r=-.209, p<.001$ ), 정보지지( $r=-.158, p<.001$ ), 물질지지( $r=-.190, p<.001$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사회적지지와는 부적 상관( $r=-.211,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폭력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r=-.180, p<.001$ ), 자기수용성( $r=-.157, p<.001$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 $r=-.158,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r=-.152, p<.001$ ), 정보지지( $r=-.130, p<.01$ ), 물질지지( $r=-.127, p<.001$ ), 정서지지( $r=-.113, p<.01$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사회적지지와는 부적 상관( $r=-.13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r=-.147, p<.001$ ), 자기수용성( $r=-.126, p<.01$ ), 목표지향성( $r=-.082, p<.05$ )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미래확신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 $r=-.14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r=.501, p<.001$ ), 자기수용성( $r=.440,$

$p < .001$ ), 미래확신성( $r = .238, p < .001$ ), 목표지향성( $r = .145, p < .001$ )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자아정체감과는 정적 상관( $r = .476,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6>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구분	부부폭력			자녀폭력			학교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부 폭력	정서적 폭력	1	1																	
	신체적 폭력	2	.691 ***	1																
부부폭력		3	.934 ***	.904 ***	1															
자녀 폭력	정서적 폭력	4	.432 ***	.407 ***	.457 ***	1														
	신체적 폭력	5	.337 ***	.482 ***	.438 ***	.733 ***	1													
	방임	6	.273 ***	.321 ***	.320 ***	.341 ***	.387 ***	1												
자녀폭력		7	.441 ***	.488 ***	.503 ***	.911 ***	.858 ***	.644 ***	1											
학교 폭력	가해	8	.273 ***	.281 ***	.300 ***	.231 ***	.242 ***	.205 ***	.275 ***	1										
	피해	9	.269 ***	.313 ***	.314 ***	.261 ***	.278 ***	.261 ***	.322 ***	.654 ***	1									
학교폭력		10	.298 **	.326 **	.337 **	.270 **	.285 **	.255 **	.327 **	.917 ***	.901 ***	1								

(표 계속)

구분	부부폭력			자녀폭력			학교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회적 지지	정서지지	11	-.202 ***	-.168 ***	-.203 ***	-.189 ***	-.150 ***	-.166 ***	-.209 ***	-.074 *	-.134 ***	-.113 **	1								
	물질지지	12	-.185 ***	-.120 **	-.169 ***	-.166 ***	-.118 **	-.178 ***	-.190 ***	-.089 *	-.144 ***	-.127 ***	.879 ***	1							
	정보지지	13	-.188 ***	-.123 ***	-.172 ***	-.151 ***	-.095 **	-.128 ***	-.158 ***	-.098 **	-.141 ***	-.130 **	.906 ***	.904 ***	1						
	평가지지	14	-.224 ***	-.176 ***	-.219 ***	-.223 ***	-.186 ***	-.178 ***	-.244 ***	-.116 **	-.163 ***	-.152 ***	.923 ***	.882 ***	.893 ***	1					
사회적지지	15	-.209 ***	-.155 ***	-.200 ***	-.192 ***	-.146 ***	-.170 ***	-.211 ***	-.099 **	-.152 ***	-.137 ***	.965 ***	.951 ***	.961 ***	.966 ***	1					
자아정 체감	주체성	16	-.176 ***	-.128 ***	-.167 ***	-.168 ***	-.137 ***	-.125 ***	-.180 ***	-.140 ***	-.127 ***	-.147 ***	.462 ***	.478 ***	.491 ***	.493 ***	.501 ***	1			
	자기수용성	17	-.154 ***	-.129 ***	-.155 ***	-.159 ***	-.103 **	-.102 **	-.157 ***	-.077 *	-.156 ***	-.126 **	.441 ***	.386 ***	.417 ***	.443 ***	.440 ***	.485 ***	1		
	미래확신성	18	-.093 **	-.050	-.080 *	-.046	-.013	-.010	-.034	-.045	-.081 *	-.068	.237 ***	.211 ***	.227 ***	.239 ***	.238 ***	.453 ***	.433 ***	1	
	목표지향성	19	-.107 **	-.051	-.089 *	-.044	-.047	-.042	-.053	-.074 *	-.074 *	-.082 *	.133 ***	.143 ***	.136 ***	.145 ***	.145 ***	.385 ***	.496 ***	.413 ***	1
자아정체감	20	-.182 ***	-.130* **	-.172 ***	-.156 ***	-.111 **	-.105 **	-.158 ***	-.115 **	-.154 ***	-.147 ***	.458 ***	.436 ***	.457 ***	.474 ***	.476 ***	.789 ***	.846 ***	.700 ***	.690 ***	1

\* p<.05, \*\* p<.01, \*\*\* p<.001

### 3.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1)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7>과 같다. 분석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9.8%이었다.

<표5-7>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 자아정체감				
	B	표준오차	$\beta$	VIF	
(상수)	3.855	.177			
통제 변수	성별 <sup>a</sup>	-.084	.048	-.060	1.114
	학년	.021	.032	.022	1.040
	부모동거 <sup>b</sup>	.103	.057	.063	1.097
	경제수준	.166	.040	.145***	1.124
	학업성적	-.161	.035	-.155***	1.027
	형제수	.039	.022	.060	1.021
폭력노출 경험	부부 폭력	-.118	.056	-.083*	1.431
	자녀 폭력	-.118	.072	-.064	1.414
	가해	-.019	.053	-.016	1.881
	피해	-.112	.057	-.089*	1.840
$R^2 = .109, \text{adj } R^2 = .098, F = 9.969^{***}$					

\*  $p < .05$ , \*\*  $p < .01$ , \*\*\*  $p < .001$  a. 여자=1, 남자=0 b. 부모모두 동거=1, 그 외=0

통제변수 중 경제수준,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노출 경험 중 부부폭력( $\beta=-.083$ ,  $p<.05$ )과 피해( $\beta=-.089$ ,  $p<.05$ )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으며,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노출경험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폭력노출경험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8>과 같다. 분석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11.8%이었다. 통제변수 중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노출 경험 중 부부폭력( $\beta=-.093$ ,  $p<.05$ ), 자녀폭력( $\beta=-.148$ ,  $p<.001$ )과 피해( $\beta=-.091$ ,  $p<.05$ )가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으며, 부부폭력 노출경험 자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8>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 사회적지지				
	B	표준오차	$\beta$	VIF	
(상수)	4.315	.215			
통제 변수	성별 <sup>a</sup>	.245	.059	.144***	1.114
	학년	-.065	.038	-.057	1.040
	부모동거 <sup>b</sup>	.120	.069	.059	1.097
	경제수준	.180	.049	.129***	1.124
	학업성적	-.116	.042	-.091**	1.027
	형제수	.032	.026	.041	1.021
폭력노출 경험	부부폭력	-.162	.068	-.093*	1.431
	자녀폭력	-.335	.088	-.149***	1.414
	가해	.108	.064	.076	1.881
	피해	-.141	.069	-.091*	1.840
$R^2 = .129, \text{adj } R^2 = .118, F = 12.019^{***}$					

\* p<.05, \*\* p<.01, \*\*\* p<.001 a. 여자=1, 남자=0 b. 부모모두 동거=1, 그 외=0

### 3)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폭력노출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를 투입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5-9>와 같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이 자아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 $\beta=.442, p<.001$ )는 자아정체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로 투입되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폭력노출경험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5-9> 폭력노출경험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 자아정체감				
	B	표준오차	$\beta$	VIF	
(상수)	2.299	.195			
통제 변수	성별 <sup>a</sup>	-.172	.044	-.124***	1.138
	학년	.044	.028	.047	1.044
	부모동거 <sup>b</sup>	.060	.051	.036	1.101
	경제수준	.101	.036	.088**	1.143
	학업성적	-.119	.031	-.115***	1.037
	형제수	.027	.019	.042	1.023
폭력노출 경험	부부폭력	-.060	.051	-.042	1.441
	자녀폭력	.002	.066	.001	1.439
	가해	-.057	.047	-.050	1.887
	피해	-.062	.051	-.049	1.849
사회적지지	.361	.026	.442***	1.148	

$R^2 = .279, \text{adj } R^2 = .269, F = 28.555^{***}$

\* p<.05, \*\* p<.01, \*\*\* p<.001 a. 여자=1, 남자=0 b. 부모모두 동거=1, 그 외=0

#### 4) 소벨 테스트(Sobel test) 검증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폭력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소벨테스트를 하기 위한 검증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을 이용한 결과는 <표5-10>과 같다.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_b^2) + (b^2 \times SE_a^2)}}$$

a(비표준화계수) : 폭력노출경험 → 사회적지지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b(비표준화계수) : 사회적지지 → 자아정체감

SE<sub>b</sub> : b의 표준오차

<표5-10>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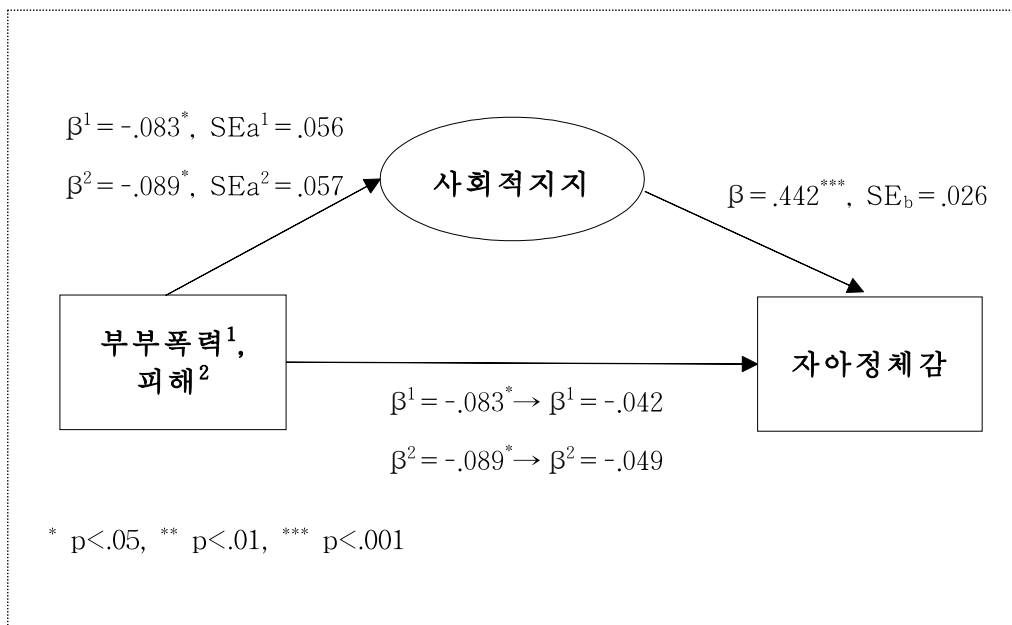
경로	a(SE <sub>a</sub> )	b(SE <sub>b</sub> )	Z <sub>ab</sub>
폭력노출경험(부부폭력) → 사회적지지→자아정체감	-.162(.068)	.361(.026)	-2.348*
폭력노출경험(피해) → 사회적지지→자아정체감	-.141(.069)	.361(.026)	-2.022*

\* p<.05

소벨테스트 결과 부부폭력의 Z값은 -2.348, 피해의 Z값은 -2.022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결과와 최종모형은 <표5-11>과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그림5-1>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최종모형

<표5-11>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구분	1단계 : 폭력노출경험 → 자아정체감			2단계 : 폭력노출경험 → 사회적지지			3단계 :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 자아정체감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B	표준오차	$\beta$	
(상수)	3.855	.177		4.315	.215		2.299	.195		
통제 변수	성별	-.084	.048	-.060	.245	.059	.144***	-.172	.044	-.124***
	학년	.021	.032	.022	-.065	.038	-.057	.044	.028	.047
	부모동거	.103	.057	.063	.120	.069	.059	.060	.051	.036
	경제수준	.166	.040	.145***	.180	.049	.129***	.101	.036	.088**
	학업성적	-.161	.035	-.155***	-.116	.042	-.091**	-.119	.031	-.115***
	형제수	.039	.022	.060	.032	.026	.041	.027	.019	.042
폭력 노출 경험	부부폭력	-.118	.056	-.083*	-.162	.068	-.093*	-.060	.051	-.042
	자녀폭력	-.118	.072	-.064	-.335	.088	-.149***	.002	.066	.001
	가해	-.019	.053	-.016	.108	.064	.076	-.057	.047	-.050
	피해	-.112	.057	-.089*	-.141	.069	-.091*	-.062	.051	-.049
사회적지지							.361	.026	.442***	
$R^2$		.109			.129			.279		
adj $R^2$		.129			.118			.269		
F		9.969***			12.019***			28.555***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문제 결과는 <표5-12>와 같다.

<표5-12>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검증 결과

연구문제	결과
1.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1. 부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자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1-3. 학교폭력의 가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1-4.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부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자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학교폭력의 가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4.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폭력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1. 부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자녀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3-3. 학교폭력의 가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3-4.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4. 폭력노출경험과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가?	
4-1. 부부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가?	완전 매개
4-2.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매개하는가?	완전 매개

## VI.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일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 사이에서 사회적지지가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823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을 종속변수, 폭력노출경험을 독립변수, 사회적지지를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및 논의

#### 1)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의 수준

폭력의 노출경험은 크게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교에서의 폭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변인 모두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은 크게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으로 나뉘는 데 실제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는 유의미하다. 부부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은 전체 평균 1.29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높았다. 자녀폭력에 노출 경험은 평균 1.26으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 방임, 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폭력 노출경험 전체의 평균은 1.42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해/피해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자아정체감 전체의 평균은 3.47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자신에 대한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사회적지지 전체의 평균은 3.89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가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정서지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인 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변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폭력과 부모 간의 정서적 폭력 모두에서 그 값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향기, 2015; 송해선, 2014; 박영중, 2015; 박주희, 2016)와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사회의 정서적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폭력에 대한 개개인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 역시 신체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만을 폭력이라 규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의 결과가 증명하듯 실제로 한 사람의 정신적 건강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 매우 크다. 개개인은 물론 일선 학교와 기관 및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가해 및 피해를 연구한 선행연

구(교육부, 2016; 송해선, 2014; 김이슬, 2017)와 유사하게 그 결과가 중간값보다 낮았으며, 자아정체감은 선행연구(최효돈, 2016; 방은경, 2015; 이상인, 2001; 서유리, 2011)와 유사하게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최효돈(2016)과 강옥봉(2015)의 연구와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 2)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고등학생의 부부폭력 노출경험은 자녀폭력 노출경험의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순으로 정적 상관이 높았고,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피해, 가해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부폭력 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노출경험의 피해, 가해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폭력 노출경험은 사회적지지의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정서지지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미래확신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는 폭력노출경험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Robertson &

Simmons, 1989; 엄명용, 2000; 이상진, 정옥분, 1999; 박재연, 2009; 주소영, 2008)에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 3)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폭력노출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 중 경제수준,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과 학교폭력 중 피해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으며,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포함된다는 뜻이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고등학생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 모든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아정체감의 불안정성은 줄어들 확률이 크겠지만, 어떤 한 가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그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폭력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신혜섭, 2000; Robertson & Simmons, 1989; 이상진, 정옥분, 1999)과 동일한 맥락이며, 특히 자녀폭력이나 가해보다는 부부폭력이나 그것을 목격한 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신체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상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성을 안겨주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가 보여주는 폭력적 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폭력노출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 중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노출 경험 중 부부폭력, 자녀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으며,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 노출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녀폭력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박재연, 2009)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혜원, 이해경, 2000; 이은주, 2000; 김윤정, 정문자, 2009)와 동일한 맥락이며,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높아질수록 고등학생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폭력노출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자아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노출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로 투입되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폭력노출경험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즉,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과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완전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폭력노출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김보람, 최수미, 2016; 송은주, 2015; 어유경, 정안숙, 박수

현, 2015)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폭력노출경험 중 특히 부부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한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고등학생의 폭력노출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특히, 폭력노출경험 중 가정폭력 중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가 이러한 영향을 완전매개한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의한다.

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학생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거 사회는 현재와 같이 고등학생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었다. 급격한 사회 발전과 변화 때문에 고등학생 청소년이 겪어지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입시경쟁, 게임과 인터넷과 같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유흥거리들, 전보다 조숙해진 또래관계들 등은 요즘의 고등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다단한 조건 속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동일시할 이상적 모델이 몇 되지 않았고, 사회

적으로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은 입시와 또래관계 형성은 물론 자신의 자아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과업을 이중 삼중으로 안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올바르고 적절한 자아정체감 발달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을 제안한다.

첫째, 고등학생에게 일관된 가치평가와 가치존중을 함으로써 그들의 역할 갈등에 개입하여야 한다.

부모, 교사, 친구가 서로 일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아정체감 확립이 증진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 교사, 기타 다른 중요한 인물들과 다른 견해와 가치를 요구할 때 고등학생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소위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요구하는 역할과 친구, 교사로부터 인식한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시도할 것이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나로 종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직 자아 확신과 자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생들에게는 일관되지 않은 역할을 강요하거나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경우,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물론, 쉽게 지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역할을 포기하거나 비행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자아정체감 확립을 매우 저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또래관계에서 고등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하여 일관되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존중을 함으로써 고등학생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체험 및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갖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성은 자아정체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즉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과 과제와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경험은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이러한 확신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결정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체험 및 활동 중심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그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는 물론 자아정체감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일선 기관에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폭력노출경험을 가진 고등학생을 위한 보호 및 폭력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폭력노출경험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적절한 가족 및 학교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학교 내 상담인력의 전문화와 폭력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복지관을 비롯해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폭력노출경험자의 위기를 관리해주는 긴급서비스 및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고 폭력노출경험 고등학생에 대한 사례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폭력노출경험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겪은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관과 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하여 폭력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의 상황에서 구제하여 건강하게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기관, 교육자, 사회 및 가정이 모두 힘을 합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끌어야 가능한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폭력 관련 정책은 처벌과 사후대책에 중심을 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사회문제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예방적 교육 정책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을 보완하여 고등학생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폭력 대처에 도움이 되는 전략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개념과 교육을 할 때, 단순히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엄연히 심각한 폭력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삶은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이고, 부모, 교육 정책자, 그리고 전 사회의 일원이 모두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폭력에 대한 그간의 뿌리 깊은 선입견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정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최초이자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에서 약자의 지위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모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즉, 가정을 이루는 첫 단계인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부터 출생과 양육을 거쳐 청소년기의 인성교육까지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 및 제도적으로 일정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고려와 제안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 및 법 정책자들이 모두 한 데 모여 최선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가 폭력노출경험을 가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적지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학생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해서는 고등학생에게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나 물질을 제공해주며, 인격

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스스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급분위기를 교사와 학생, 또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사회적지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또래 간의 지지적 관계형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위기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의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에서의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간에 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역할훈련, 대화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고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망을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지지체계를 위해 폭력상담센터, 전문상담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례관리와 지역네트워크 조성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 및 경기도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인임을 밝혀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요인을 투입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실천적 개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가정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노출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고등학생의 교육과 심리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옥봉(2015). 부모양육방식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유미(2006).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4) 2014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부(2016)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구본용(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권용미(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재기(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잠재 계층 성장 분석,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7.
- 권현주, 남영희, 천의영(2012).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2), 17-27.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호(2003).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47-71

- 김기수(2010).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학교생활적응 및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8). 성인의 청소년기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10).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1991).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최수미(2016).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28(3), 897-914.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5). 집단 따돌림의 가해·피해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 상담학연구, 6(2), 359-371.
- 김순화(1983).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의 지각과 자아정체 수준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 김지미(20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논문집-동남보건 대학, 19(2), 163-172.
- 김윤경, 정문자(2009).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8), 1-11.
- 김은경(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슬(2017). 청소년의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경험, 희망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7). 부부권력구조와 갈등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창간호, 41-65.
-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7권, 1-32.
- 김재엽, 양혜원, 김희수(2005).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분석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0, 67-101.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109-137.
- 김정선(2002). 외상이론과 주변성: 여성주의적 외상이론을 이용한 미국내 한국이민자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을 위한 개념적인 모델. 목회와상담, 3, 264-310.
- 김중환(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김유진(1979).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연구원 논집, 33, 165-186.
- 김현수(1999).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부모의 역할.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논집, 15-29.
- 김현숙(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 15(2), 121-143.
- 김현정(2016). 군인의 가정폭력경험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2009).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연구: 발달 및 추정을 중심으로.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효진, 이재연(2004). 초등학생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8(3), 413-437.
- 김희수, 이재토, 홍성훈 (2006).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4, 79-97.
- 김희영(1986).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혜정(2012).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진로의식성숙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 대도시학교와 대안학교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도희(1997). 부부폭력이 자녀학대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미라(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은정(201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채욱(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가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 : Erik H. Erik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계명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근혜(1998).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은(1997).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연구, 22(2), 83-98.
- 박아청(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 140-162.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영신, 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종(2015). 중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 또래 동조성과 공격성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열(2010).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민(2008).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

- 그림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박주희(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19권 4호, 71-94.
- 박주희(2016).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0권 3호, 131-149.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수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채규만(2011).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45-67.
- 박혜숙(2016).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방은경(2015). 고등학생의 열등감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선(1985).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봉연(1988). 한국청년들의 Identity Crisi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 연구문제, \_ (3): 129-160.
- 서연주(1998).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리(2011).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 윤(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성 및 노출정도가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6), 223—253.
- 송동호, 육기환, 이호분, 노경선(1997).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2), 232-241.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은주(2015). 집단따돌림 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5(10), 283-322.
- 송해선(2014).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우울불안이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옥(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옥, 박아칭, 최성열(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신복기, 이성진(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6호.

- 신혜섭(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미희(2002).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영아, 정원철(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12). 331-354.
- 안영순(2010).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또래애착,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영(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현실 자아 정체감 및 사이버 자아 정체감이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영, 한유진(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현실 자아 정체감과 사이버 자아정체감의 불일치. 인간발달연구, 13(4): 55-74.
- 양점미(2011).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유경, 정안숙, 박수현(2015).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71-589.
- 엄명용(2000).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측 요인의 발굴. 한국사회복지학회, 42, 254-289.
- 여성가족부(2004). 2003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08). 2007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7).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 오가실, 박영주, 오경옥, 김정아, 이숙자, 김희순, 정추자(1999). 한국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80-789.
- 윤명숙(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미(2005).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상숙(2014).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과 학교부적응: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숙, 이은옥(1997). 위암환자의 질병과정에 따른 사회적 지지요구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호학 논문집*, 11(2), 175-190.
-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200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인(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진, 정옥분(199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경험과 자아정체감과

- 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73-87.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국, 박아청(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신뢰감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7(1), 217-229.
- 이승출(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옥(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용교(2012). 한국청소년복지론, 서울: 정민사.
- 이은주(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이인섭(2002). 가족형태와 청소년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2013).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분석. 정신보건과사회사업, 41(1), 143-168.
- 이현림,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이현주(2009). 청소년의 해외 유학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셋별(2014). 호텔 직원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 및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2001). 가정폭력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2007).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 69-97.
- 장부연 (200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도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미, 김주현(2012).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 긍정적태도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172-202.
-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은주(2014). 예비 유아교사들의 대인예민성과 관련 변인간의 구조관계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환희(2013). 학교생활만족도가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정동채(1997).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대책. 월간 시민과변호사, 9월호.
-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향기(2015).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능력과 충동성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상윤(2004). 노숙인의 취업유지와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2007). 대학생의 동아리활동과 사회적지지, 학업적응도 및 대학생 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영(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사회정서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영환(2013). 학교폭력학: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실마리. 서울: 그린.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아동교육, 10(1): 119-132.
- 최성한(2011). 조직 내 팀원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시연(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최은희(2003).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내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희(199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돈(2016). 가족건강성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고3의 특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양친부모가정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 한상미(2011).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경, 이주연, 김성식, 신민섭, 정제영, 정성수, 김성기, 박주형, 장원경, 이동형, 김영화, 오인수, 이승연, 신현숙(2014).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원인진단과 대응. 서울: 학지사.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예진(2015).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향연, 유태명(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3), 49-64.
- 황희숙(2005).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학교적응,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의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외국문헌

- Baldry, A. C., & Farrington, D. P.(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17-31.
- Baron, Reuben M. and David A. Kenny(1986).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oth, A., & Osgood, D. W.(1993).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deviance in adulthood: Assess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Criminology*, 31(1), 93-117.
- Caputo, A. A., Frick, P. J. & Brodsky(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women. *Criminal Justice & Behavior*, 26(3), 338-356.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s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Syme, S. L.(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310-317.
- Durkheim(1994).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김충선 역), 서울: 청아. (원저 1952년 출판)
-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Vol 1(1), pp. 18-164
- Erikson, E. H.(1969).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Finn, J.(1985). The Stresses and Coping Behavior of Battered Women, Social Case Work, J of Contemporary Social Work, June, 341-348.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6, 1016-1024.
- Gore, S.(1981). Stress-buffering of social support: An appraisal and clarification of research models. In B.S. Dohrenwend, B.P. Dohrenwend(Eds.),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sts (202-222). New York: Prodist.
- Hanish, L . D., & Guerra, N.(2002).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Merrill-Palmer Quarterly, 50(1), 17-38.
- Holden, G. W., Geffener, R. A. & Jouriles, E. N.(1998).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theory, research & applied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ess.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 Addison Wesley Pub.
- Kahn, R. L. & Antonucci, T. C.(1981). Convoys over life courage. Attachment, role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3, pp.253-258.
- Lin, N., Dean, A. & Ensel, W.(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 Academic Press.
- Marcia, J. E.(1996). Development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argaret, A. L. (1985). *Adolesc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cNeal Jr.(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Social forces*, 78(1), 117-145.
- Meeus, W.(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5).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s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obertson, J. F. & Simmons, R. L.(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25-138.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11, 1-15.
- Silver, R. L. & C. B., Worst man(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 In J. Garber and M. E. P. Seligman(Eds.), *Human*

-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raus, M. A. (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An evaluation and new data on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 A. Straus, & R. J. Gens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49-7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 Straus, M. A. & Gelles, R.J.(1979). Determinant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549-581.
- Straus, M., Hamby S. H., Boney Mccoy, S.,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d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Tuckman, B. W.(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Turner, W. L.(1990). Ego Identity development in black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ABSTRACT

## The Impact of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on Self-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Kim Sang 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impact of violent exposure experience on the self-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nfirm the mediation of social support to propose social welfare practices. The research model was set up focusing on self -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which were insufficient in previous studie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8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finally analyzed 823 of the 860 questionnaires distributed.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Baron & Kenny 's method and the Sobel test were

analyzed and verified the effect of experience of violence on self - identity through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violent exposure to high school students was lower than the median of 3, and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were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dicating that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were high in respondents.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exposure experience, social support, and self -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showed that violent exposure experience ha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and self - identity,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 - identity.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exposure and self - identity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elf - identity, Exposure experience, child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victim exposure 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 - identity showed that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no longer affected self-identity. Social support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damage exposure experience on self - identity. The median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Sobel test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experience of violent exposure in high school students directly affects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exposure to violence indirectly influences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through social support. In particular, the experi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violence exposure in high school students influenced the self-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1. A variety of interventions are needed to develop self-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violent exposure experience is a factor that hinders high school students' self-identity. Therefo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for high school students exposed to violence are needed. First, it should intervene in high school students' role conflict by consistently valuing value and respecting value that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 important in home, school, and peer relations. Second, through experiential and activity-oriented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s should intervene in career decision making so that they can have confidence in the future and find a career that matches their aptitude.

2. Protection and violence prevention activ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experience of exposure to violence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the specialization of counselors in the school and the activation of violence counseling programs are important for the early detec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of high school students exposed to violence.

Second, it is imperative that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hich can be practically useful for high school students, is implemented within the school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3.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social support for high school students to maintain mental health.

This study found that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with experience of violent exposure and provided a basis for social support in social welfare practice. To improve social support, First, class atmosphere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smooth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between teachers, students, and pe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amily - based program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relationship. Third, integrated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various cases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violence counseling centers,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ie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violence exposure in home and school sites on the formation of self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and suggest ways to practice high school students in specific social welfare practice methods and home school.

Keywords: violent exposure experience, marital violence, child violence, school violence, social support, self-identity

조사일시	2017년 월 일		
설문번호			

## 설 문 지

**"폭력 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on Self-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Self-identity)에 대한 박사학위 연구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오직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 문항마다 정답은 없으며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중한 답변이 여러분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 김 상 옥 박사생(010-9095-8010)

지도자 : 박 주 희 교수(02-920-7575)



1.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서로 간에 아래와 같은 대화 또는 행동들이 오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없음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1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투시다가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상대방을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투시다가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투시다가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투시다가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투시다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투시다가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투시다가 상대방을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투시다가 칼이나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각 질문에서 여러분이 직접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말과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없음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 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1	부모님이 나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나에게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나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이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이 나의 몸을 세게 밀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이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이 나를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이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내가 지저분한 옷을 입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나에게 제 때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내가 음란 서적(만화)나 음란 동영상을 보아도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가 규칙(공중질서)을 지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1년 동안의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동안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다른 아이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아이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다른 아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어떤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반 아이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반 아이들 혹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반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반 아이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반 아이들이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 선배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내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칸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또는 친구/선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 돈 이라도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에 지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무슨 일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 또는 친구/선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7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노력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래의 문장 중 현재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문장 내용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집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